

■ 오늘부터 '쇠고기 國調' ... 핵심쟁점은

# '30개월이상 수입' 누가 결정했나

## 美 사료조치 강화 내용 알고 있었나 '韓美 정상회담 선물용' 여부 논란도

국회가 14일부터 38일 간 실시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에서는 협상과 관련된 정부 내부의 전반적 의사 결정 흐름과 일정, 마후 배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수입조건이 고시돼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팔리고 있는 만큼, 안전성 등 결론이 나기 힘든 원론적 부분이 논점이 되기보다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에 야당의 공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갑작스런 정부 입장 변화의 배경=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2006년말, 작년초까지만해도 뺏조각까지 위협하며 전랑 반송시킨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30개월이상 쇠고기까지 안전하다고 허용했다는 점,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그동안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은 작년 5월 시점부터 사실상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규제 명분을 잃

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참여정부 임기 안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 10월 1차 쇠고기 협상은 이틀만에 결렬된 바 있어 정부가 방침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참여정부 말기부터 이미 강화된 사료조치를 조건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개방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전, 현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책임 공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선물' 논란=야당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국과의 정치 및 통상 관계를 고려, 협상 타결을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결국 모든 것을 내줬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미 정상회담 선물'이었다는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4월 10일,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6개월이상 미



우린 한우만 먹을래...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3일 여의도 한우전문 음식점에서 최재성, 김유정 대변인 등 당직자들과 함께 한우 고기로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워왔던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격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11일부터 과천 농식품부 청사에서 시작된 쇠고기 협상은 결국 18일 새벽 타결됐다. 이는 양국 정상이 미국 시각 19일 오전 부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회담을 갖기 하루 전이어서 야당 측의 집요한 의혹 제기가 예상된다.

▷부실한 협상=타결된 협상 내용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정부 당국자 공격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30개월이상 수입'의 전제 조건인 미국의 강화된 사료 조치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합의했는지 여부가 공격 대상이다. /연합뉴스

## 쇠고기 國調 출석 증인·참고인 놓고 한나라-민주 '살바싸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놓고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왜곡된 정보 확산과 참여정부 때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양국간 기술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재조명하면서 정부의 졸속 협상에 초점을 맞춰 재협상 불가피론을 전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조사에선 우선 쇠고기 파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직 청와대 인사 및 관료들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미 기술협약과 6월20일 종료된 추가협상의 책임자인 정은원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출석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전 경제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증인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면서 졸속, 퍼주기 협상으로 이끈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주시시키기 위해 청와대 1기 참모진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

획이나 한나라당은 청와대 참모진이 한미 협상에서 한발 비켜서 있었던 데다 국정조사과정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이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속해 있는 만큼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하여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일부의 청문회 출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참여정부 인사들의 청문회 출석 여부를 놓고 양당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 타결에 앞서 참여정부에서 협상 진전이 있었던 만큼 당시 김중수 이 개입한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직 대상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참여정부 당시의 농림수산부 책임자, 청와대 참모진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현 정부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한나라당이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측을 청문회장에 불러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된 만큼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MB정부 첫 국정조사 성과 거들까?

이명박 정부 초기 정국의 가장 큰 이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 1988년 부활 이래 지금까지 70여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뤄졌고 그중에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를 포함해 20여 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대표적인 국정조사 대상 사건은 88년 5공 권력형 비리, 93년 12·12 사건 및 유골비리,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97년 한보사태, 98년 IMF 환란, 2002년 공적자금 사건 등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2005년 쌀 관세화 유예 연

장협상 국정조사에 이어 3년 여만에 실시된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정치공방의 장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20여 차례 국정조사 중 보고서 채택까지 이뤄진 경우는 6차례에 불과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보통 15~30일 안팎이던 종래 국정조사보다 긴 38일의 조사기간을 뒀고, 각각 두 차례씩 청문회와 기관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미국 현지조사도 가능하게 했다. /연합뉴스

## 여야 '광우병 진실게임' 충돌하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에서 치열한 공수(攻守) 대결을 펼친다.

특히 여야는 최초 쇠고기 협상의 타결 배경과 협상의 책임 소재, 추가 협상의 문제점 등을 놓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한나라당=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광우병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각종 유언비어를 바로잡겠다

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에서 '광우병 괴담'이 번지게 된 원인과 배경을 짚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의 위험이 실제보다 상당부분 과장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과 철저한 검역 등 후속조치들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예봉을 꺾기 위해

'수비수'가 될 특위 위원으로 올라 출신을 주축으로 논리력과 언변력을 갖춘 의원들로 엄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번 쇠고기 국정조사를 통해 18대 국회 초반의 국정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81석에 불과한 제1야당이 거대 여당에 맞서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

거들라는 확실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셈법인 것이다.

이를 위해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의 전략 실패를 규명하고 실질적인 협상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3개 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꼼꼼히 질의할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 '광우병 괴담' 바로잡겠다  
민주당 - 졸속협상·책임 소재 추궁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인생역전 개강 8월1일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금번 9급시험에 본 학원 수강자 여러분들의 많은 합격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7급 공무원 원 대비

행정직, 교정직, 교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특검직, 특목직, 건축직, 보건직

※ 본 학원 강사진은 오랜 강의경력을 갖춘 전국최강의 프로교수팀임을 자부합니다 ※

금년 중·하반기 시험

7월 15일(주·야반모집)

합격수강 회원모집

6개월 (총) 80만원  
1년 (총)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귀하의 합격을 위해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sl.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우문앞) 222-4560

#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연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시험 10월 26일

7월 문제풀이특강 8월 핵심이론 + 단원별 문제이해

9월 총정리 및 실전문제특강 10월 동형 모의고사 + 일일 단기특강

국비무료 고용보험 환급과정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개원)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행학습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인문과 신력을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학원이전, 오창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출발빌딩 4층

#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 6월 21일(토)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사실에 농림부 자금 지원

▶ 시험: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제19회 공인중개사 10월 26일 시험대비!

기본서 공인중개사 프린트 시험지

개강 7월1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 이해

기본서 내용을 핵심요약하여 오는 배웠던 단원에서 10문제 풀이 통해 정확히 핵심이론 정리를 통한 최종점검

9~10월은 실전(동형)모의고사 최종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최종문제풀이 주택관리사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무료 현재 접수중 [6월 30일까지 방문접수 요망]

44년 전통!!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본원출신 전국수석

www.lankor.com

#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합동점 ☎ 971-0002 (구레미트빌딩 옆 광주은행 4F)

원서접수: 2008.8.18 ~ 8.27 (원서접수대행)